한・중・일 현대도자기디자인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sign of Contemporary Ceramics in Korea, China and Japan

영 현 월, 노 황 우
한밭대학교 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

Rong xuan-yue, Noh hwang-woo
Hanbat National University

요약

한・중・일(韓中日)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오랜기간 삼국 사이에 문화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그 중 도자기는 한・중・일 교류의 중요한 역사이다. 자기 제조는 중국에서 고대 조선으로 전해져 들어간 후에 또 조선 및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져 들어갔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예술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도자기의 역사, 형태, 재질, 도안 등 비교 연구를 통하며 현대에 이르러 뚜렷한 특징과 차이점이 아직도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점차 디자인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중・일 삼국 전통도자기예술 중에서 청자 및 백자는 자기 발전의 기초이다. 천년간 발전에 따라서 지금 자기의 생산력이 크게 강화되고 종류도 끊임없이 나타났다. 중국만 2001년 기준 자기 생산량은 120억개이다. 다양한 자기 중에 한・중・일은 자기의 분야 중 각각의 특별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국이 같은 동아시아 도자기 문화를 가지고 발전시켜 왔는데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도자기 문화가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국 도자기의 문헌연구 및 인터넷 조사와 현재 가장씩 많이 판매되고 있는 한・중・일 도자기 브랜드 1개씩 선정하여 형태, 재질, 도안을 비교 연구하였다.

Ⅱ. 한・중・일 현대 도자기 비교 연구

2.1. 한・중・일 도자기역사

한국의 도자기는 신석기 시대부터 출현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당삼채 (唐三彩) 및 청자으로 참고하고 발전시켜 고려청자를 만들었다. 조선시대에 백자가 만들어 졌으며 임진왜란을 통해 백자의 제조기술이 일본에 전해졌다. 일본은 도자기 제조기술이 전해지기 이전에는 한국 및 중국의 수입에 의존했다. 중국의 도자기는 청자, 백자, 당삼채(唐三彩), 분채・연채 (粉彩瓷), 청화(青花瓷), 법랑차(珐琅彩) 등 도자기를 만들었으며 그 중에 청차가 으뜸이다. 전세계 최초 발견의 청자가 중국 산시성 (陝西省) 에 있으며 송나라 (宋代) 시대 청자가 전성기였다. 백자는 최초 한 대 (汉代) 에 생겼으며 성숙한 백자는 수나라 때 출현하여 당나라 시대 전성기에 됐다. 그때 "남청북백"의 말이 생겼다.

2.2. 현대 한・중・일 도자기 현황

2.2.1. 전세계 도자기산업 현황

최근 몇년간 전세계 도자기 산업의 규모는 약50조원이며, 한국은 년간 1조 3000억원에 달한다. 생산지 중에 아시아가 65%를 점유하고 유럽이 30% 점유한다. 또한 2001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도자기 생산량이 약120억개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70%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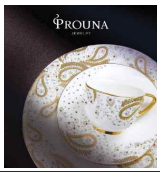
표 1.세계도자기 소비현황 및 생산현황 (2014년)[1]

구분	소비현황(%)	생산현황(%)
EU	7.0	9.6
유럽 기타국가	4.5	4.6
북아메리카	3.8	2.5
중남아메리카	10.6	9.6
아시아	67.5	70.5
아프리카	6.2	3.2
기타	0.4	0
합계	100	100

2.2.2. 대표적인 한・중・일 현대 도자기

현재 한・중・일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판매량이 많은 3개 브랜드는 다음 〈표.2〉와 같다.

표 2. 대표적인 한・중・일 현대도자기 브랜드

국가	브랜드	내용
한국		Prouna는 한국 최고급 브랜드이며 영국 왕실과 한국의 많은 대통령이 선택한 도자기 브랜드이다.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고 판매량 중에서 30%는 수출한다.
중국		Red rose (红玫瑰) 는 중국에서 본차이나를 1973년에 최초로 개발한 기업으로 현재도 전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 년간 1,200만개를 생산하며 중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NORITAKE는 일본에서 3대도자 공장 중의 하나이다. 일본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로 유명하며 가격이 비싸며 소장가치가 높기로 유명하다.

2.3. 현대 한・중・일 도자기 비교연구

2.3.1. 한・중・일 현대도자기 형태, 재질 비교

표 3. 한・중・일 현대도자기 형태, 재질 비교

국가	브랜드	형태	재질
한국		대부분 키가 큰 원기둥, 원형 등 기하형태가 많고 불규칙적인 동물패턴과 두께가 조금 두껍다	본차이나 자토
중국		대부분 원기둥, 원형 등기하학적 형태가 많고 두께가 얇으며 불규칙적인 패턴과 감상 목적이 많다.	본차이나 고령토 자토
일본		대부분 원기둥, 원형 등기하형태가 많고 두께가 두꺼우며 불규칙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차이나 자토

2.3.2. 한・중・일 현대도자기 도안 비교

표 4. 한・중・일 현대도자기 도안 비교

국가	브랜드	특징
한국		1. 추상한 동물 및 꽃을 위주로 한다. 2. 다양한 진귀한 장실문 응용 3. 중국과 비슷한 전통 도안 사용 4. 현대 디자인 원소 많이 응용 5. 도안은 꼼꼼하게 작은 면적의 선 및 색
중국		1. 추상한 동물 및 꽃을 위주로 한다. 2. 고사 등 주제을 위주로 전통 원소 도안 3. 현대 디자인 원소 사용 4. 도안은 복합적 선 및 색 사용
일본		1. 동물 및 꽃과 부채 등을 위주로 한다. 2. 전통 원소 도안 3. 현대 디자인 원소 사용 4. 도안은 큰 면적의 선 및 색 사용 5. 애니메이션 원소 사용

Ⅲ. 결론

한・중・일의 현대 도자기 형태의 차이점은 형태에 있어서 한국의 도자기가 가장 키가크고 길었으며 일본이 가장 낮았다. 기물의 두께는 일본이 가장 두꺼웠으며 중국이 가장 얇았다. 재질에 있어서는 본차이나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자토, 고령토를 추가로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한・중・일의 현대 도자기의 도안의 특징은 전통 디자인 원소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였으며 기하학적이며 현대적인 디자인 패턴은 한국이 많이 사용하였고 고사 등 전통적인 요소는 중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꽃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같은 문화권의 역사에 전승한 관계가 있어 3국 도자기 사이에 비슷한 것 많지만 발전한 과정 중 각각의 뚜렷한 특징을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세계 사이에 교류가 빨라진데 현대도자기의 큰 차이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

[1] 佛山陶瓷2015, pp.2
[2] 中国陶瓷发展现状及分析, pp.2